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분석 쿠르드족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Authors)	스름
출처 (Source)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2016.12, 83-97(15 pages)
발행처 (Publisher)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Resea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2680
APA Style	스름 (2016).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83-97
이용정보 (Accessed)	전남대학교 168.131.63.*** 2020/05/26 21: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분석: 쿠르드족 사례를 중심으로

| 스 림 |

윌슨(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 분석: 쿠르드족 사례를 중심으로

스 림
(전남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 2.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론
- III. 윌슨의 원칙을 따른 쿠르드족의 민족자결주의
 - 1. 쿠르드족의 민족자결주의
 - 2. 국제연맹의 역할
- IV. 결론

I. 서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유평화체제를 통해 봉인되었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28대 미국대통령은 제1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전 세계 피식민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전시와 전후에 윌슨이 했던 연설과 주장, 또한 승리 없는 평화와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장기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연맹 창설의 제안은 패전국으로 하여금 공정한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였으며, 억압받는 전 세계 피식민들에게는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이라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그러나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주장은 전시의 수사에 불과한 듯 보였고, 그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되었으며, 그가 제시한 목표는 이상주의자의 꿈에 지나지 않은 듯하였다.

윌슨은 다른 학자들로부터 이상주의자로 평가받도록 되는 것은 그가 만들었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었다. 그가 말하는 ‘민족자결주의’란 궁극적으로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다. 승전의 전리품들을 나누기 위한 회합에 초대된 전승국들로서는 당혹스러운 개념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¹⁾

윌슨의 언론 비서였던 베이커(Ray Stannard Baker)는 “마치 미국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악행의 기억들, 깊은 상처가 된 전해 내려오는 오해들 등, 세상의 모든 불만들을 치유하고자 하고, 또 치

1) 김승배, 김명섭, “베르사유평화체제의 ‘보편적 표준’과 한국과 일본의 이몽(異夢): 민족자결원칙과 국제연맹규약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52집 2호, (2012), p.38

유 할 수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²⁾” 고 ‘자기결정’ 원칙으로 인해 미국이 처하게 된 예상치 못했던 곤란한 상황을 서술하였다.

결국으로는 많은 식민지화되면서 피압박 민족들과 그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여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그 회담에 미국의 자문단으로 참가했던 스테판 본설(Stephen Bonsal)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여기 파리에는 약 30-40개의 서로 상충하는 이해를 갖는 평화회담 대표단이 모여 있으며, 또한 그보다 더 많은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대표단들이 있다” 고 서술하였다.³⁾

파리에 모였던 피압박민족 대표들 속에 투르크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족들이 있었고,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인, 헝가리로부터 벗어나려는 루마니아인,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유대인,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페르시아인, 120년 만에 독립을 눈앞에 둔 폴란드인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조선인이 있었다.⁴⁾

쿠르드족은 다른 수많은 피압박민족들과 나란히 자기 운명결정권을 획득하고자 했던 민족이었으며, 월슨을 비롯한 전승국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컸다. 그들은 수백년 동안 오스만 제국 하에서 살아 왔다. 오스만제국이 참전한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서한(Huseyin-McMahon correspondence)’ 을 통해 연합국과 함께 참전한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에게 종전(終戰) 후 통일된 아랍국가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동시에 연합군과 대오스만제국 전쟁에 참여한 쿠르드인들에게도 자치권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⁵⁾ 승리한 동맹국들은 쿠르드 대표와 미국을 옵서버로 참석시킨 가운데 1920년 8월 프랑스 세브르에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터키를 포함한 약 14개국이 모여 433항에 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62조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경계를, 63조는 터키가 62조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64조는 국제연맹 이사회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국제연맹의 쿠르드 독립권고안을 터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⁶⁾ 1920년 9월 체결된 ‘세브르 조약(The Treaty of Sevres)’ 은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고 아랍, 아르메니아, 쿠르드 독립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섹션(Section) III의 62, 63, 64조를 통하여 쿠르디스탄에서의 쿠르드 국가의 독립을 명백히 언급하였다.⁷⁾ 결국 쿠르드족은 독립을 못해 자기가 거주지가 여러 국가 영토로 분리되어 버렸다.

월슨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숭고한 이상주의자로 내려지든, 냉철한 현실주의자, 또한 전략적 기회주의자로 내려지든⁸⁾,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다. 월슨이 제1차세계대전 종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시했던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원칙이 수많은 세계인들, 특히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큰 반향과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식민지적 억압에 의해서든, 또는 민족 간의 영토적 갈등에 의해서든, 자신이 속한 종족이 부당한 억압과 종족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와 종족과 영토의 주민들은 갑자기 자기결정의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 할 수는 없었다.⁹⁾

2) Ray Stannard Baker, “Woodrow Wilson and World Settlement: Written from His Unpublished and Personal Material”, Original Documents of the Peace Conference, New York, 1923, Vol. 3, p.6.

3) Bonsal Stephen, “Suitors and Suppliants, The little nations at Versailles”, New York, 1946, p.267.

4) Ray Stannard Baker, *Ibid*, pp.1-7

5) 홍순남, “이라크 쿠르드족의 저항운동”, 『중동연구』 제14호, 1995, p. 137.

6) Michael M. Gunter,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urds”, The Scarecrow Press, Inc.Lanham, Maryland • Toronto • Oxford, 2011, p. 269, Knyaz Mirzoyev, “The Kurds: Essays on history and culture”, ISCANDER Press, 2003. p. 29.

7) Mehrdad R. Izady, “A Concise Handbook The Kurds”, Published by Taylor & Francis, 2009. p.27

8) David Steigerwald, “Historiography. The Reclamation of Woodrow Wilson?”, Diplomatic History, Vol. 23, No. 1, 1999, pp.79-99.

본 연구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의 맥락에서 쿠르드족의 사례를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검토

1)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윌슨을 이상주의자로 평가하는 학자로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한스 모겐소(H. J. Morgenthau), 로버트 오스굿 (Robert Endicott Osgood), 해롤드 니컬슨(Harold Nicolson)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파리 회담 이전까지 윌슨 대통령을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파리 평화 회담의 결과에 실망한 케인즈는 1920년 출판된 평화의 경제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를 통해 윌슨이 파리회담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짐으로써 민족 자결주의를 실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케인즈는 윌슨 대통령에 대해 “서구에서 온 철학왕은 정치에서는 단순히 고집스러운 장로교 신학자에 불과하였고, 그의 경직된 마음과 세밀한 준비의 부족으로 로이드 조지의 명민함과 클레망소의 냉소적인 확고함에 당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은 이러한 숙련된 구세계의 지도자들에 의해 혼란스럽게 되고, 그들에게 속았으며, 그의 국제연맹의 꿈의 강박증 때문에 그 자신의 14 개조 대부분을 희생시켰다”고 혹평을 하였다.¹⁰⁾

모겐소는 유럽에서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윌슨 대통령이 세력 균형 대신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제시하고자 한 이상주의자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베르사유 평화 회담의 결과 윌슨이 타협하는 이상주의자, 빈손의 국가지도자, 불신 받는 동맹이 되어 돌아왔다고 묘사하였다.¹¹⁾

오스굿은 윌슨 대통령에 대해 국가 이기주의를 보편적 도덕적 가치에 종속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연맹을 전략적 상호 의존성이 아니라 도덕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여 결성하려고 하였다는 점, 미국의 임무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이타주의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상주의자로 평가하였다.¹²⁾

니컬슨은 민족 자결의 이상은 결함이 없으며, 문제는 이상형에 실체를 부여할 “우상”이 진흙 밭이라고 하였다. 그는 민족 자결은 평화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원리를 보편적으로 완전하게 강력하고 과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그 책임이 윌슨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서 윌슨 대통령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조차 거부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교묘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¹³⁾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과 이상주의자 윌슨 대통령의 독특한 지적, 기질적 결함으로 민족자결주의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윌슨을 현실주의자로 보는 견해로는 E. H. 카(E. H. Carr)와 알프레드 코반(A. Cobba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9) 이진일, “서구열강의 아시아분할과 민족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원칙”, 수선사학회, 사립(성대사립), 39권0호, 2011, p.341

10) John Maynard Keyn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London: Macmillan, 1919, 1971, pp. 36-50.

11) J. Peter Pham, “Wha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Hans Morgenthau’s Realist Vis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30, 2008 pp.256-265,

12) Robert Endicott Osgood, “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s Foreign Relations,” in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ed Jerald A. Comb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pp.309-339.

13) Harold Nicolson, “Peacemaking 1919”, London: Constable, 1933, pp.35-47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현실주의학파는 민족 자결의 개념은 보편적 인적용이 가능한 이상형이 되었거나 결코 (실현)될 수가 없는 비실용적인 도덕적 슬로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월슨이 경험한 어려움과 그가 수행한 일에 대한 이후의 비난은 전적으로 예측가능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슨이 민족 자결주의 슬로건을 외친 것은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합법적 도덕적 접근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카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에 함축된 혼란을 해결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지적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민족성(nationality)과 자결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state)와 민족(nation)이 일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자결은 정치적 단위의 형태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모든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만큼 유일하거나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¹⁴⁾

정치적 형성물로 문화를 토대로 하여 구성된 것도 아니고 민족을 단위로 구성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개념상의 모순이 민족자결주의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⁵⁾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월슨을 현실주의자로 평가하는 급진주의적인 역사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와 고든 레빈(N. Gordon Levin, Jr.)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은 이상주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현실주의적이며, 탐욕스럽다고 할 만큼 이기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베르사유에서 월슨의 행동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바로 월슨의 개방적 제국(Open Door Empire)확대의 바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¹⁶⁾ 급진주의 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윌리엄스는 월슨의 유명한 14 개조와 국제연맹 규약에 대해 초월주의적인 이상주의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에 개방 정책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하였다. 레빈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이 볼셰비키의 대응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는데, 1919년 가을 월슨은 세계의 불안한 대중들이 쉽게 수용할 여지가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적 경향을 막을 자유주의적 장벽으로 조약과 연맹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아노 메이어(Arno Mayer) 역시 월슨의 민족 자결주의 주장을 볼셰비키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¹⁷⁾

2) 쿠르드족에 관한 기존 연구

국내에서 쿠르드 문제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에는 주로 쿠르드족의 기원 및 발생, 그리고 쿠르드문제와 독립운동과정 등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지역별, 나라별로 혹은 쿠르드족을 단일한 소수민족으로서 다루는 경향이 주였다. 홍순남(1995). “이라크 쿠르드족 저항운동”, 공지현(1999). “쿠르드족 민족주의 운동: 기원과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등이 그러하다. 2003년 이후에는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태숙(2006)¹⁸⁾. “바그다

14)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London: Macmillan, 1942

15) A. Cobb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4

16) Jerald A. Combs,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pp.24-25

17) William Appleman Williams, “The Great Evasion,” in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ed. Jerald A. Comb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pp. 6-41; N. Gordon Levin Jr., “Woodrow Wilson and World Politics,” in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ed. Jerald A. Comb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pp.352-356; Arno J. Mayer, “Political Origins of the New Diplomacy, 1917-1918”,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18) 이태숙, “바그다드의 구심력과 쿠르드지역의 원심력 사이-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20세기 전반 영국의 정책”, 『중동연구』, Vol.24, No.2. 2006

드의 구심력과 쿠르드지역의 원심력 사이-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20세기 전반 영국의 정책”, 유왕중(2010) 19), “마흐디 민병대와 이라크 쉬아파 제도권 진입 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라크 쿠르드족을 소수민족집단임을 전제로 다루는 경향이 유지되었고, 이라크 중앙 정부, 혹은 이라크 시아파와 순니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였다.

해외연구는 이라크 쿠르드와 관련하여 키르쿠크 문제를 다룬 다양한 주제의 연구결과들이 많다. Sarah D.Shields(2000)²⁰⁾. “Mosul Before Iraq” 는 이라크 국가 수립이전 오스만터키의 한 행정 지역이었던 모술주(Mosul vilayat)를 다룬다. 흥미로운 점은 키르쿠크를 포함하여 모술에서 유전이 발견되기 이전의 상황이지만 7세기 이슬람의 도래 이후 모술지역은 바그다드와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쿠르드인이 다수였던 지역 내에서 인구구성학적 분석보다는 야지디 기독교인들, 유대교 공동체, 네스토리안인, 칼데아인 등 무슬림 대기독교인을 포함한 비무슬림, 혹은 기독교인 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으로서 종교 공동체간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은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 문제가 오스만 터키왕조의 해체 이후 근대국가 수립과정에 발생된 문제임을 반증하고 있다.

2.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론

월슨 미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의회에서 전쟁종식과 민주주의 영구평화계획을 담아 ‘14개조’를 제창하였다. 그것은 종래의 비밀외교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에 의한 세계분할을 도덕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는 국가 간의 전쟁과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므로 모든 영토와 주권은 각 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영토문제의 해결은 타협이 아니라 관계 국민의 이해와 복지,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²¹⁾

14개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 공개적인 강화협약 이후 비밀외교 종식을 선언한 제1조, 항해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역설한 제2조와 제3조, 군비경쟁의 지양과 자제를 당부한 제4조, 그리고 식민지 민족자결을 선언한 제5조, 대러시아 협조주의를 당부한 제6조와 전후 전쟁 당사국인 유럽 각국의 주권 회복을 명시한 제7조에서 제13조, 그리고 국제연합체제의 필요를 언급한 제14조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특히 제5조와 제14조는 쿠르드족을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피압박민족들에게 독립의 서광을 비추는 복음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제5조는 식민지 주권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될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식민지의 요구를 자유롭고 편견 없고 또한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식민지 제민족의 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슨의 민족자결원칙에서 자(自, self)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自, self)의 단위로 인정받을 만한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를테면 남북전쟁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았을 때, 왜 남부는 스스로의 노예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자(自, self)로 인정될 수 없었는가? 왜 여러 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미합중국은 반드시 하나의 국제적 자(自, self)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는가? 이처럼 자결의 원리는 많은 모호성을 지닌 것이었으며, 분출하는 민족적 자(自, self)들로 인해

19) 유왕중(2010). “마흐디 민병대와 이라크 쉬아파 제도권 진입 과정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Vol.28, No.3.

20) Sarah D.Shields. “Mosul Before Iraq”,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2000

21) 이우진, 「임정의 파리강화회의외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불외교사』, 평민사, 1987, pp.130-131; 미국사 연구회,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소나무, 1992, pp.237-240.

22) Henry Steele Commager 지음, 한국미국사학회 역음, 「월슨의 14개조」, 『사료로 읽는 미국사』, 궁리, 2006, pp.283-286

빛어지는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민족자결원칙이 지닌 이러한 위험성은 집단안보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²³⁾

그러한 제5조의 내용은 제14조를 통해서 재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국제연맹 설립을 규정한 제14조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간에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에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체제가 특별한 협약 하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²⁴⁾ 그것은 대전 중 연합국 측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이었다. 때문에 식민지 피압박민족은 그것이 “명료하고 의문의 여지없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므로 민족운동이 고양되었다.²⁵⁾

또한 12항의 오스만-투르크 제국내 소수민족문제에 관해서도 그는 ‘autonomous development’, 즉 ‘자치적 단계’에 대한 보장을 얘기함으로써 독립이나 자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나마 그가 적용대상으로 지목한 민족들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0항)과 오스만 제국(12항) 내의 제 민족들(nationalities)에 국한시키고 있었다. 14항에서는 위에 제시한 모든 평화 원칙들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써,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간에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체가 특별한 협약 하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적시함으로써 제시한 모든 사항들의 실천이 다가올 평화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장차 만들어질 ‘국가들 간의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체’에 의해 이루어 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²⁶⁾

베르사유평화체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된 민족자결원칙은 첫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오스만 제국 해체의 원리, 둘째, 동방문제(Eastern Question, 東方問題) 해결의 원리, 셋째, 1648년 이후 베스트팔렌평화조약에서 이어지는 주권문제의 새로운 해결원리로서 기능했다. 특히, 세계 각처에서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던 민족들은 “모든 식민주의적 청구(all colonial claims)에 대한 공평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윌슨의 주장에 크게 호응했다.²⁷⁾

III. 윌슨 원칙을 따른 쿠르드족의 자결주의

1. 쿠르드족의 민족자결주의

국가 없는 민족(stateless nation)²⁸⁾인 쿠르드는 다 국가(transnational) 민족을 대표한다. 쿠르드인들의 민족운

23) 김승배, 김명섭, 위에 논문, p.41

24) Manfred F. Boemeke, Gerald D. Feldman, and Elisabeth Glaser, “The Treaty of Versailles: A Reassessment after 75 Ye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45

25) 야택풍 외, 『아시아민족운동사』, pp. 31-32

26) 이진일, 위에 논문, p.344

27) 윌슨의 14개조 중 제5조: A free, open-minded, and absolutely impartial adjustment of all colonial claims, based upon a strict observance of the principle that in determining all such questions of sovereignty the interests of the populations concerned must have equal weight with the equitable claims of the government whose title is to be determined.

28) 영어권 일부 학자들은 ‘stateless’, ‘landless’, ‘minority’, 등의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마리아나(Mariana)는 거주지역이 있으므로 ‘landless’나, 거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의 문제에 참여하므로 ‘stateless’라는 표현이 부적합하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쿠르드를 ‘non-state actors’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휘태커(Whitaker) 등은 이러한 ‘non-state actor’로 NGO, 비영리조직인 think-tanks, diaspora를 포함시키기도 한다.(Mariana Charountaki, “The Kurds and US Foreign Policy-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since 1945-”, Routledge Studies in Middle Eastern Politics. 2011. pp. 10-11)

동 또는 분리독립운동²⁹⁾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에 기반 한 권리를 찾기 위한 수많은 정치활동과 투옥, 무장 투쟁과 전쟁, 상대방의 보복과 난민, 디아스포라의 반복적 순환이었다.

쿠르드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고대부터 광활한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명을 주도적으로 창출하였다. 오늘날의 밀, 보리, 호밀, 오토밀, 콩류, 포도 등의 조상들이 기원전 9000년 직전에 오늘날 쿠르드인들의 조상에 의해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³⁰⁾ 쿠르디스탄(Kurdistan)은 신석기 농업혁명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차이외늬(Çayönü) 지역은 야금술의 존재가 증명된 세계 최초의 2곳 중 한곳이다. 차이외늬(Çayönü)³¹⁾에서는 기원전 5000년 전반기 500년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銅)기구가 발견되었고 청동기구들은 이곳에서 기원전 4000년 초기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보다 2,000년이 앞선 것이다.³²⁾ 이는 강력한 쿠르드 정복왕조가 존재했다는 증거이기 도하다. 이러한 바탕위에 시작된 기원전 3000년 후반 쿠르드의 쿠틸(Qutl)왕조가 초기 왕조들과 많은 도시국가(city-states)들을 정복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후 새로이 설립된 그들의 상징적 국가인 메데 제국(Median Empire, 기원전 약 727년-549년)³³⁾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멸망한 이후에도 많은 쿠르드 왕조들(Kingdoms)과 공국들(principalities)이 흥망을 거듭하며 쿠르디스탄의 지배적 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이후 마지막 이민족 왕조가 아나톨리아 (Anatolia) 지역에 창건되었는데 그것은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이었으며 오스만 제국 지배하의 쿠르드 공국들은 봉건적인 형태의 자치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맹국 편에 섰던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던 비터키계 소수민족에게 자치개발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8월10일 연합국과 터키 정부가 체결한 세브르 조약은 쿠르드족의 지역적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세브르 조약 제64조는 쿠르드족이 원한다면 조약 발효 1년 이내에 독립적인 완전한 자치권을 터키 공화국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터키에 불리한 이 조약은 뒤이은 터키의 독립전쟁(1919년, 1923년)과 1922년 그리스에 대한 승리로 터키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여 상황이 바뀌자, 1923년 연합국과 새로이 체결한 강화 조약인 로잔 조약에서는 대부분의 쿠르드스탄 지역을 터키영토로 규정하고,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과 지위 문제는 완전히 무시되었다.³⁴⁾

29)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영역은 ‘Separatist Movement’, ‘Independence Movement’가 주로 쓰인다. 쿠르드 관련 영어권 책에서는 주로 민족운동을 ‘national movements’로 표현하며, 민족국가건설은 ‘nation-state-building’으로 표기한다. ‘Kurdistan’은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미로 사용된다. ‘Kurds’는 일반적인 전체로서의 쿠르드인들, 쿠르드족 또는 역사속의 쿠르드인들과 쿠르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키는 말이며 ‘Kurdish’는 좀 더 설명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 쓰이는 형용사 단어다 즉 ‘쿠르드의 역사(kurdish history)’, ‘쿠르드민족(kurdish people)’, ‘쿠르드 민족정체성(kurdish national identity)’과 같이 주로 형용사로 쓰인다.

30)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은 존재하나 일치하는 것은 쿠르디스탄의 서부 측면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Mehrdad R. Izady, *Ibid*, p. 27)

31) 연구자가 학술조사차 방문한 차이외늬 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위치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세련된 석주(石柱)가 있는 장방형 동굴의 형태였다. 이 차이외늬 동굴은 1960년대부터 로버트 존 브레이드우드(Robert John Braidwood)에 의해서 발굴 되었는데 약 9,000년 전 주거지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동굴 주변 우측에 내부 3면은 반월형으로 움막되고 바닥은 직사각형의 흙이 파인 석문을 설치한 이끼 낀 동굴 무덤(Kaya mezarlan)들이 늘어서 있다.

32) Mehrdad R. Izady, *Ibid*, p. 24. 이러한 야금술의 발명은 이 당시의 쿠틸 왕조가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한 정복 국가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도시국가들과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였으며 이 쿠틸 왕조에 대한 기록이 아카디아 왕인 나람신(Akkadian king Naram Sin r. 2291-2210 BC)의 쿠르드 묘사에 등장한다.(*Ibid.*, pp. 29-30) 쿠틸 왕조 성립 당시 한반도는 청동기 문명을 소유하고 중앙아시아 부근에서 발원하였던 기마족의 지도자인 환웅들의 강력한 동진(東進) 정복전쟁으로 중국, 만주 및 한반도 역시 환웅에게 정복 당하던 시기들과 유사한 시기이다.

33) 메데 제국(BCE 727~BCE 549. BCE 700~BCE 550).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헤로도투스는 메데 제국의 존속기간을 128년으로 주장하나 이는 판단 착오로 보이며 연구자의 주장에 의하면 대략 150년 정도 제국이 존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헤로도투스 지음, 박광순 역, 『역사』 파주: 범우사, 2009, p.105)

당시 영국은 대오스만 제국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독립을 요구한 쿠르드의 주장을 처음에는 외면할 수 없어 모술(Mosul) 지역을 국제연맹³⁵⁾에 상정하여 합법적인 쿠르트 자치국가 건설을 일시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쿠르트 민족국가 건설에 암운이 드리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술(Mosul), 키르쿠크(Kirkuk) 등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유전³⁶⁾이었다. 대규모 유전의 전략적인 가치는 막대하였으므로 영국은 쿠르드의 자치안을³⁷⁾ 폐기하고 1923년 7월 로잔조약(Treaty of Lausanne)을 통하여 쿠르디스탄을 시리아, 터키,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으로 분할하였다.³⁸⁾ 영국은 산유지인 모술 지역을 소국 이라크에 편입함으로써 더 많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세브르 조약을 철회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창설되면서 세속주의에 바탕을 둔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 Atatürk) 대통령의 정치와 종교 분리 정책은 당시 정교일치의 무슬림들인 쿠르트족을 중앙 정부와 분리하는 조치로 쿠르트족의 저항을 야기했다. 또한 케말주의자(kemalists)들의 근대화 운동이 지향하는 급속한 서구화 작업은 쿠르트족의 전통적 사회구조와 대립되었다. 이어서 1924년에 터키는 쿠르트어 교육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 언어의 사용 이외에도 쿠르트어의 저술, 출판, 방송 등도 철저히 봉쇄되었고, 정당과 모임에 관련된 터키법 89항에서 터키 영토 내에서 어떤 소수민족도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터키정부는 1925년, 1930년, 1935년에 발생한 쿠르트족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쿠르트족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쿠르트족의 인종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산악 터키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또한 생활 기반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십만명의 쿠르드인을 중앙 및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기도 했다. 1925년부터 1965년까지는 쿠르디스탄 지역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군사지역이기도 했다.

터키 내 쿠르트족의 투쟁은 쿠르트족 자치 정부 건설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터키인 중심의 터키 공화국을 선포하는 등의 케말 정책에 대한 반감과 1924년 칼리프제도의 폐지와 종교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a)의 금지법안채택과 같은 비이슬람 세속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쿠르트족 정체성의 부정과 터키화를 목표로 하는 동화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터키는 터키인과 쿠르드인의 동일체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는 터키내 다른 소수민족들, 그리스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보여주는 제한적인 자치나, 종교,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정책과는 대조된다. 그리스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들은 정치적 구별 이외에 자신들의 종교의식, 고유한 언어 사용, 민족 교육과 출판 등에 일정한 자치와 지분을 보장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일반 터키인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³⁹⁾

이란 쿠르트족은 1920, 30년대에 레자 샤(Reza Shah)의 중앙 집권 정책에 일련의 반란과 봉기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실했다. 레자 샤는 ‘국민계도위원회(Society for Public Guidance)’를 통해 라디오 방송, 교육 자료,

34) 공지현, “쿠르트족 민족주의 운동: 기원과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18권 제2호, 1999, p.163

35)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과 영국의 단체들이 기구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국제분쟁 억제 수단으로 국제연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이 1차대전 참전 강대국의 힘에 의해 쿠르디스탄의 분할과 석유자원 수탈의 합법적인 승인자 역할도 수행하였다.

36) 사이크스-피코 협정 이후에 모술과 키르쿠크의 석유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를 먼저 인식한 석유회사들이 영국 등을 움직여 모술 등 주요 유전지대에서 나는 석유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분할하여 분배하였다. 이라크 젊은 민족주의자들과 장교들은 이러한 석유 수탈을 용인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1958년 쿠데타를 일으켜 석유 수탈을 종식시켰다.

37) 이 당시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오는 로렌스(T.E. Lawrence)는 쿠르트 지역을 터키와의 완충지대로 설정하여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영국에 의해 거부당하였고 결국 남부 시아, 중부 순니, 북부 쿠르드를 아우르는 이라크가 탄생하였다. 쿠르트 문제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영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38) Akbar Ahmed, “The Kurds-Creation of the Modern Middle East”. CHELSEA HOUSE PUBLISHERS, 2003. pp. 25-26., Michael. M. Gunter,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urds”, The Scarecrow Press, Inc. Lanham, Maryland • Toronto • Oxford, 2011, p.269., Mehrdad R. Izady, *Ibid.* pp.59-61.

39) 공지현, 위에 논문, p.164-165

기타 출판물 등 모든 언론 매체를 통제하면서 쿠르드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의 인종적 정체성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교육, 출판, 대중 연설에서 쿠르드어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쿠르드 교육기관은 이란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운 중단으로 문을 닫았다. 또한 이슬람 쿠르드 전통 민족 의상착용이 금지되고 유럽식 복장 착용이 강요되었다. 레자 샤의 경제적 근대화 정책에서도 이란 쿠르디스탄 지역은 제외되어 낙후 상태가 계속되었다.

1930년 이후 이란 정부군이 재조직되어 이란 당국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쿠르드 거주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근본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서를 설치하고 도로를 건설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쿠르드민족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수도인 테헤란으로 압송하여 부족민들과 격리시켰다. 또한 이란 정부는 이라크 정부나 터키 정부처럼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강화하여 쿠르드 민족의상 착용을 금지하고 전통 관습을 폐지하며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페르시아어의 사용을 강요했다. 이란 당국은 쿠르드족이 종족적으로, 언어 문화적으로 이란인과 한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종족 구별없이 페르시아 문화권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⁴⁰⁾

2. 국제연맹의 역할

국제연맹은 1925년 12월 쿠르드족을 보호한다는 조건으로 이라크 모술 지역의 통치권을 남겨준다고 결정했다. 쿠르드족 보호라는 조건으로 이라크 쿠르드족 거주지인 모술 지역의 영유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터키와 이란보다 이라크 쿠르드족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와 주권을 누려왔다.

국제연맹이 쿠르드족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1918년부터 시작되어 1924년에 국제연맹에 맡겨진 이라크 모술지역의 처리와 국경선 문제로 국가간 해결하지 못할 때 국제연맹이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라크라는 신생 독립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위임통치를 종식하느냐를 국제연맹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심사를 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였다.⁴¹⁾

첫 번째 경우는 쿠르드족의 문제제기나 그들의 독립의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무술 지역이 남부 쿠르디스탄 지역과 가까이 인접해 있고,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국제연맹이 쿠르드족의 입장에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술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남부 쿠르드 지역도 자연스럽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편입되는데 있어서 국제 환경으로 무리가 없었다.

모술 지역이 영토분쟁화된 것은 1918년이 되어서였다. 그 전까지는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시리아에 가깝기 때문에 전후 시리아를 통시하게 된 프랑스의 관할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식민부, 인도부, 공군 등의 중요 부서에서 모술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모술지역이 없이 메소포타미아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은 영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모술지역은 석유 매장지역으로 확인 된 이후 터키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메소포타미아를 별도로 국가로 독립시키려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경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중재하도록 국제연맹에 의뢰했다. 그러나 터키는 국제연맹보다 주민투표에 의한 귀속을 주장하였다.⁴²⁾

이러한 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결국 모술지역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40) Edgar O'Ballance, "The Kurdish Revolt: 1961-1970", London, Great Britain, 1973, p.30

41) David McDowall, "The Kurds: A Nation Denied", London: Minority Right Group, 1992, p.143

42) David McDowall, Ibid, p.144

국제연맹에 맡겨졌다. 국제연맹은 국경 확정 위원단을 구성하여 모술지역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었다. 국제연맹의 국경 확정 위원단이 1925년1월 모술에 도착하여 쿠르드족, 아랍인, 투르크멘 등 현지 거주인의 인종 구성과 그들이 구속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연맹 위원단은 모술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부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연맹의 결정에 대해 터키가 불복을 선언함으로써, 이 모술지역 관할 및 국경선 확정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졌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도 동일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1926년 터키는 이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고 양국 간 쌍무협정을 통해 모술지역 및 국경선 문제에 확정을 지었다. 이처럼 국제연맹이 개입된 첫 번째 문제는 당시 국제연맹에서 영향력이 컸던 영국의 계획과 의도대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남부 쿠르드 지역영국의 목표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게 되었다.⁴³⁾

두 번째로 국제연맹이 개입된 문제는 이라크 위임통치 종결 심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를 앞두고 이라크 지역에서는 쿠르드족대규모 저항활동이 전개되었고, 그 원인은 1930년6월에 영국과 이라크가 체결한 조약 때문이었다. 이 조약에서 이라크의 국방책임은 영국의 책임에서 이라크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양보 대신 영국은 전시에 이라크 내에 군대 이동권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이용권한과 군수품 조달 및 군사고문관제, 그리고 바그다드와 바스라 부근의 영국 공군기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⁴⁴⁾

그러나 쿠르드족에 관한 지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쿠르드족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이 보였다. 이에 따른 쿠르드족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한 가지는 영·이라크 조약 비준을 위한 의회선거를 거부하는 운동이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대응은 무장저항 세력의 확대였다.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쿠르드족 무장 세력의 지도자 마흐무드는 바그다드 정권 잔학함에 대한 고발과 함께 영국 위임통치 아래 쿠르드 지역에 대한 통합 요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쿠르드족 지도자들의 이러한 청원서는 국제연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각되었다. 대신 영국 측에게 쿠르드족에 관련하여, 약속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라크의 독립 후에도 쿠르드족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문제는 두 번째였다. 국제연맹의 심사를 앞두고 쿠르드족의 지도자 마흐무드의 무장 저항세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영국과 이라크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라크 정부는 영국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영국은 공군력을 동원하여 이라크 반란군 공습이라는 강경책을 사용하여 마흐무드가 항복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영·이라크 조약은 1930년11월에 의회에서 비준되었다. 뿐만 아니라 쿠르드족에 대한 보장도 특별하게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1932년 계획보다 19년을 앞당겨 위임통치를 끝내고 독립 주권국가로서 국제연맹에 가입시켰다.⁴⁵⁾

이처럼 국제연맹은 쿠르드족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던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강대국인 영국의 입장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이라크 지역의 쿠르드족은 점점 현재에 주어진 현실이 미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쿠르드족과 약속한 사항도 과감히 펼쳐버림으로써 약소민족인 쿠르드족은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43) David McDowall, Ibid, pp.144-146

44) Charles Tripp, "History of Iraq",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66-67

45) Charles Tripp, Ibid, pp.66-67

IV. 결론

월슨의 “그들이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모든 국가들의 평등”에 대한 선언은 피식민 약소국가의 민족 주의자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평등과 민족의 자기결정이라는 대의를 일으켰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도들을 찾지 못하였고, 서구의 열강들을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월슨이 제시했던 민족의 자기결정 원칙에 대한 고무와 감격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결국 그것은 견고한 제국주의적 지배구조 하에서는 ‘현실화 될 수 없는 희망’이었을 뿐이다. 월슨의 신질서에 대한 이상적 구상이 집약되어 표명된 것이 14개조선언이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식민지 제민족의 보편적인 민족자결은 고려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우위를 정치적으로도 구현하고자 했던 미대통령에게 식민지 피압박민족이 독립에의 서광을 발견하고 희망을 걸 것과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연히, 월슨에게 민족자결은 전쟁에 관련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월슨은 전쟁이 종결되기 직전, 강화회의를 위한 예비회담을 추진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선언한 민족자결이 식민지 민족지도자들의 구호가 되었으며, 기타 열강도 이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4개조선언을 강화회의의 기준으로 삼기위해서 예비회담이 진행될 때, 열강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모호한 조항의 적용을 놓고 해석의 혼란이 일어났다. 해석의 혼란은 제5항의 민족자결 선언을 식민지 피압박민족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식민지·약소민족에게 가장 컸다.

쿠르드족은 월슨의 자결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기회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 했고, 강대국들의 통치 및 개입 때문에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다. 강대국들의 계획에 따라 그 동안 살아왔던 영토가 몇가지로 분리되면서, 다른 국가 영토에 들어가 버렸다.

참고문헌

- 공지현, “쿠르드족 민족주의 운동: 기원과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18권 제2호, 1999
- 김승배, 김명섭, “베르사유평화체제의 ‘보편적 표준’ 과 한국과 일본의 이몽(異夢): 민족자결원칙과 국제연맹규약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52집 2호, 2012
- 야택풍 외, 『아시아민족운동사』
- 왕종(2010). “마흐디 민병대와 이라크 쉬아파 제도권 진입 과정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Vol.28, No.3.
- 이우진, 「임정의 파리강화회의외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불외교사』, 평민사, 1987, pp.130-131; 미국사 연구회,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소나무, 1992
- 이진일, “서구열강의 아시아분할과 민족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원칙”, 수선사학회, 사림(성대사림), 39권0호, 2011
- 이태숙, “바그다드의 구심력과 쿠르드지역의 원심력 사이-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20세기 전반 영국의 정책”, 『중동연구』, Vol.24, No.2. 2006
- 홍순남, “이라크 쿠르드족의 저항운동”, 『중동연구』 제14호, 1995
- A. Cobb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4
- Akbar Ahmed. “The Kurds-Creation of the Modern Middle East”. CHELSEA HOUSE PUBLISHERS, 2003.
- Arno J. Mayer, “Political Origins of the New Diplomacy, 1917-1918”,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Bonsal Stephen, “Suitors and Suppliants, The little nations at Versailles”, New York, 1946
- Charles Tripp, “History of Iraq”,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David McDowall, “The Kurds: A Nation Denied”, London: Minority Right Group, 1992
- David Steigerwald, “Historiography. The Reclamation of Woodrow Wilson?”, Diplomatic History, Vol. 23, No. 1, 1999
-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London: Macmillan, 1942
- Edgar O’ Ballance, “The Kurdish Revolt:1961-1970”, London, Great Britain, 1973
- Harold Nicolson, “Peacemaking 1919”, London: Constable, 1933
- Henry Steele Commager 지음, 한국미국사학회 엮음, 「월슨의 14개조」, 『사료로 읽는 미국사』, 궁리, 2006
- Knyaz Mirzoyev, “The Kurds: Essays on history and culture”, ISCANDER Press , 2003.
- J. Peter Pham, “IWha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Hans Morgenthau’ s Realist Vis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30,2008
- Jerald A. Combs,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John Maynard Keyn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London: Macmillan, 1919,

1971

- Manfred F. Boemeke, Gerald D. Feldman, and Elisabeth Glaser, "The Treaty of Versailles: A Reassessment after 75 Ye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45
- Mariana Charountaki, "The Kurds and US Foreign Policy-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since 1945-", Routledge Studies in Middle Eastern Politics. 2011.
- Mehrdad R. Izady, "A Concise Handbook The Kurds", Published by Taylor & Francis, 2009
- Michael M. Gunter,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urds", The Scarecrow Press, Inc.Lanham, Maryland • Toronto • Oxford, 2011
- N. Gordon Levin Jr., "Woodrow Wilson and World Politics," in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ed. Jerald A. Comb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Ray Stannard Baker, "Woodrow Wilson and World Settlement: Written from His Unpublished and Personal Material", Original Documents of the Peace Conference, New York, 1923, Vol. 3, p.6.
- Robert Endicott Osgood, "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s Foreign Relations," in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ed Jerald A. Comb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Sarah D.Shields. "Mosul Before Iraq",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2000
- William Appleman Williams, "The Great Evasion," in Nationalist, Realist, and Radical: Three views of American Diplomacy, ed. Jerald A. Comb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